

## 요리스 라만(Joris Laarman) 개인전 《요리스 라만 랩: Gradients》 개최

기자간담회: 2018년 5월 10일(목) 오후 1시 30분 국제갤러리 2관

전시기간: 2018년 5월 10일(목) - 6월 17일(일)

전시장소: 국제갤러리 2관(K2)

국제갤러리는 오는 5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네덜란드 출신 작가 요리스 라만(b.1979)의 개인전 《요리스 라만 랩: Gradients》를 개최한다. 《Gradients》전은 2011년 처음 국내에 요리스 라만을 소개한 국제갤러리 개인전에 이은 두 번째 개인전으로, 지난 4년간 진행한 첨단 기술의 실험을 담은 신작 및 근작 30여 점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최첨단 기술과 장인 정신을 아우르며 디자인과 과학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요리스 라만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소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요리스 라만 랩의 창의적인 생산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 스케치, 렌더링 등 작업 전반의 이해를 돕는 자료도 함께 선보여진다.

《Gradients》전은 작가의 <Microstructures>, <Dragon>, <Maker>, <Gradient Screen>을 포함, 다양한 최근 시리즈의 작품으로 구성된다. 그 중 <Microstructures> 시리즈는 3D 그라디언트 패턴(3D gradient patterning)에 개념적 기반을 두어 획기적 규모의 가구를 보다 만들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을 탐구한다. 이 때 각각의 작품은 마치 세포처럼 형태, 크기, 기능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셀(cell)' 로 구성되어 있다.

<Dragon Bench>와 <Gradient Screen> 시리즈는 요리스 라만 랩이 개발한 혁신적인 대규모 다축 금속 프린팅 기술(Multi Axis Metal Printing) 도구인 MX3D 프린터를 활용한 독특한 조각 작품으로 이전에는 실현할 수 없었던 복잡한 곡선과 곡면을 공중에 구현해낸다.

이번 전시의 주요 기술로 등장하는 MX3D 프린터는 강철 소재는 물론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알루미늄 등 다양한 금속 소재를 출력할 수 있고, 어떤 지지대 없이도 3D 로봇의 팔을 사용하여 공간의 어느 방향으로든 입체 형태로 프린팅이 가능하다. 특히 요리스 라만 랩은 <Dragon Bench>에 활용된 3D 기술로 올해 암스테르담에 길이 12.5m, 폭 6.3m의 다리를 완공할 예정이며, 이로써 실용적인 건축 및 사회 기반 시설 분야로까지 확장 가능한 기술임을 증명하고 있다.

한편 <Maker> 시리즈는 나무 같은 단단한 재료를 복잡하고 유기적인 형태, 패턴과 접목하는 파라메트릭(parametric) 공예 기술로 제작한 작품으로, 디자인과 디지털 제조 기술이 보여준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공예와 기술도 공생할 수 있다는 작가의 철학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현재까지 10여 곳의 기관에 소장 및 전시되어 있다.

저명한 수학자 앨런 튜링(Alan Turing, 1912-1954)의 이름을 딴 <Turing Tables>는 이번 전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연작이다. 튜링은 생물 마감할 무렵, 생물학과 화학에 관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논문을 집필하며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들이 일종의 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역설하였다. 이후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과학 연구를 통해 실제 자연에서 소위 "튜링 패턴"으로 일컬어지는 줄무늬, 나선, 소용돌이 무늬 등을 발견함으로써, 튜링의 가정들은 대부분 입증되었다. 이런 현상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튜링 패턴이 실제 생태계, 더 나아가 은하계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끔 했다. 본 전시에서는 3D 프린팅이 가능한 MX3D 로봇을 이용, 브론즈와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한 일련의 독특한 테이블을 선보이며, 철저한 계산이 만들어낸 심미성은 현 시대 실용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이번 전시는 2017년 호주 멜버른의 내셔널 갤러리 오브 빅토리아에서 호핑 속에 개최한 트리엔날레와 《요리스 라만 랩: 디지털 시대의 디자인》 순회 회고전이 시작된 후 열리는 첫 번째 갤러리 전시다. 라만의 회고전은 네덜란드 그로닝거 미술관, 미국 애틀랜타 하이 미술관, 미국 뉴욕 쿠퍼 휴잇 국립 디자인 박물관에서 개최되었으며, 다가오는 2018년 6월 말 미국 휴스턴 미술관에서 또 한 번의 대규모 전시를 앞두고 있다.

전세계에서 열리고 있는 요리스 라만 랩의 전시의 핵심 흐름을 보여주는 이번 개인전 《요리스 라만 랩: Gradients》는 현대의 디지털 기술이 예술과 접목해 진화 중인 새 시대의 디자인 방법론을 경험함과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주요 작품 설명

**<Maker Table>(2014), <Maker Chairs>(2014):** 수학 공식을 적용해 기하학적 패턴을 설계하는 파라메트릭(parametric) 기술을 적용한 작품이다. 단단한 호두나무를 육각형 혹은 그물망 패턴의 작은 단위로 구성해 3D 입체 퍼즐처럼 제작했다. 이처럼 작은 조각을 끼워 맞춰 결합하는 방식은 다양한 재료를 이용, 복잡한 형태의 작품 제작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소형 3D 프린터로도 출력할 수 있다. 라만은 <Maker> 시리즈의 청사진을 인터넷에 배포해 3D 프린터가 있는 곳이라면 전세계 어디서든 변형 및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Microstructures Aluminum Gradient Chair>(2014):** 알루미늄을 레이저로 소결 처리해 만든 작품이다. 신소재 연구와 생성적 디자인 기술(generative design·디자인 목적에 맞게 컴퓨터 프로그램에 일련의 규칙이나 알고리즘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빠르게 여러 대안적인 디자인 결과물을 내놓는 기술)을 활용했으며, 의자를 구성하는 각 부분에 할당된 기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셀룰러 개념 기반의 셀(cell)을 만들었다. 특히 견고함이 필수적인 의자의 구조를 이루는 뼈대 부분일수록 셀의 밀집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icrostructures Soft Gradient Chair>(2014):** <Aluminum Gradient Chair>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시대에 알루미늄과 폴리우레탄을 가구 디자인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물이다. 요리스 라만 랩은 꾸준한 재료 연구와 생성적 디자인 기술을 통해 열가소성 폴리우레탄을 3D 프린터로 출력해 가구로 탄생시켰다. 이로써 셀의 크기와 다공성, 두께, 유연성, 색상 등에 변화를 주며 프로그래밍의 다양한 변수를 통해 기능적 요건을 충족하는 결과물을 만들고 있다. 폴리우레탄으로 제작된 이 작품은 편안함과 부드러움이 특징이다.

**<Microstructures Adaptation Chair>(2014):** 최첨단 기술을 통한 디지털 공예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입력된 컴퓨터의 명령을 받아 의자의 각 부분에 할당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하학적으로 변형된 작품이다. 바닥에서 시작한 기다란 셀은 나뭇가지처럼 뻗어나가 의자의 다리 부분을 형성하고, 그 다리는 다시 좌판을 지지하기 위한 일종의 구조물이 된다.

**<Microstructures Gradient Lounge Chair>(2015):** 전체가 뻗어나가는 세포 형태로 만들어진 라운지 체어다. 의자를 구성하는 육각형의 셀은 의자 각 부분에 맞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변형되었다. 작품의 윗면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직조한 텍스타일이 더해진 점이 특징이다.

**<Vortex Console>(2014):** 예술가이자 과학자, 그리고 프로그래머인 미국 미시간대학교의 마크 J.스탁(Mark J.Stock)의 컴퓨터 기반 보텍스 기법(computational vortex methods) 연구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이다. 고성능 컴퓨터에 알고리즘을 입력하여 평범한 듯한 일자형 선반에 강하게 소용돌이치는 장식성을 가미했다. 이 작품의 특징은 사용자에게 따라 매번 새로운 변주를 적용하여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가구 또한 대량생산되는 시대에서 '기능성'과 '장식성', 그리고 '개인 맞춤(personalization)'은 요리스 라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두임을 확인할 수 있다.

**<Gradient Screen>(2017):** 요리스 라만 랩이 자체 개발한 다축 금속 프린팅 기술 도구 MX3D 프린터를 사용한 획기적인 규모의 실험적 작품으로, 청동에서 강철에 이르는 다중소재(multi-material)가 사용되었다.. 컴퓨터로 생성된 스크린의 미학은 단지 눈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기술의 경계를 혁신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지금껏 3D 프린팅으로 본 작품 크기의 형태를 만들어낸 전례가 없으며, 요리스 라만 랩은 새로운 조각 작품을 선보임과 동시에 '선(line)'을 활용한 3D 프린팅 기술의 잠재력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

## 작가소개

요리스 라만은 1979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다. 디자인 아카데미 에인트호번에서 수학하였고, 2003년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2004년도에 연구, 실험 그리고 획기적 기술을 통해 디자인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요리스 라만 랩을 설립했다. 이 뜻에 공감한 과학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및 공예가로 구성된 다학제(multidisciplinary)의 중심지인 요리스 라만 랩은 디자인, 기술, 과학, 그리고 예술이 만나는 분야의 선구자로 평가 받고 있다. 라만의 작품은 국제적인 전시에 다수 소개된 바 있고, 파리 퐁피두 센터, 뉴욕 현대미술관,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등을 포함한 유수의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라만은 2004년 월페이퍼 매거진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젊은 디자이너 상'을, 2011년 월스트리트저널이 주관한 '올해의 혁신가 상' 등을 수상하였다. 현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요리스 라만 (b.1979)**

<Microstructures Gradient Aluminum Chair>

2014

Aluminum

72 x 62 x 60 cm

Courtesy Joris Laarman Lab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요리스 라만 (b.1979)**

<Microstructures Gradient Lounge>

2015

Copper and nickel plated 3D printed polyamide, silk, mercerised cotton and Merino wool

90 x 200 x 100 cm

Courtesy Joris Laarman Lab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요리스 라만 (b.1979)**

<Dragon Bench>

2014

3D printed stainless steel

215 x 320 x 160 cm

사진: Adriaan de Groot

Courtesy Joris Laarman Lab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요리스 라만 (b.1979)**

<Pair of Maker Chairs (Puzzle)>

2014

Walnut and maple

78 x 60 x 65 cm

Courtesy Joris Laarman Lab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요리스 라만 아티스트 프로필 사진  
Courtesy Joris Laarman Lab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들은 함께 첨부된 작품 및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당이미지는 홍보목적으로만 전시기간 내 사용되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화질 이미지는 아래 웹하드를 통해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WEBHARD.CO.KR | ID: kukjegallery | PW: kukje

**KUKJE GALLERY | COMMUNICATIONS**  
T +82 2 3210 9821 | [press@kukjegallery.com](mailto:press@kukjegallery.com)

## **KUKJE GALLERY**

54 SAMCHEONG-RO, JONGNO-GU SEOUL, 03053 KOREA  
T + 82 2 735 8449 | F + 82 2 733 4879 | [WWW.KUKJEGALLERY.COM](http://WWW.KUKJEGALLERY.COM)

요리스 라만(Joris Laarman) 개인전 《요리스 라만 랩: Gradients》 개최